

지구촌 대재앙... '우주의 경고'

특별칼럼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하여 지구촌에 대재앙이 거듭되고 있다.

군사독재의 나라 미얀마에서 대재앙 사이클론이 일어났다.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이재민이 백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곳은 40만 톤의 곡식을 수출하는 곡창지대인데, 그곳이 초토화되었으므로 세계 곡물시장이 요동칠 것이라 한다.

미얀마 군사독재 정권은 나라의 문을 굳게 닫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구호 물품만 받아쓰겠다고 한다. 들리는 바로는 군사 정권의 관리들이 농장 대처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한다.

그 군사독재 정권의 관리들은 죽은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치유하고 있을까. 또 이재민들을 어떻게 보호 관리하고 있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행위이다.

미얀마의 재앙에 이어 중국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 쓰촨성 재난구조본부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만 명이 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진 발생과 함께 도시 전체의 건물 80%가 붕괴된 베이촨현의 사망자는 7천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들려온 바로는, 학교들이 무너져 수업 받던 학생 몇 백 몇 천 명씩이 한꺼번에 매몰되었다고 하기도 한다. 소름끼치는 일이다.

티베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나라 거대 중국의 대재앙 이외에 미국과 브라질 일본 등에서도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한 환경 대재앙은 거듭되고 있다. 한반도라고 해서, 그러한 재앙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성난 얼굴로 그 대재앙들을 살펴볼 일이다.

사이클론이 자연 대재앙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인류의 문명이 스스로 불러온 것이다. 전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땅속의 기름을 길어 올려 태우고, 혹은 원자로를 통해 열을 뽑아내고, 프레온 가스 등으로 인하여 대기층을 오염시킨 까닭



한 여중생이 5월 14일 중국 쓰촨(四川)성 베이촨(汶川)에서 이를 전의 강진으로 붕괴된 중학교 전체 속에서 구출된 뒤 운반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태풍 대지진 등 인류 욕망이 불러온 재앙 한반도 대운하로 인한 물의 재앙 우려도

로 지구는 거듭 달구어져 왔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내려 해수면이 높아간다.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현상과 그 반대로 바닷물이 차가워지는 현상이 섞바뀜으로 인하여 바람의 흐름에 혼란이 일어남으로써 뜻밖의 강한 바람이 일어나고 폭우나 폭설이 쏟아진다.

대지진은 얇은 지층의 주저앉음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구촌 이곳저곳의 도회지들에서 짓고 있는 고층 건물들과 땅 속에서 시험하고 있는 핵무기의 폭발들이 그 원인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바야흐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하고 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동물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그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거기다가 이 땅의 모든 닭과 오리나 칠면조들에게 조류독감이 만연되고 있다. 그것은 날씨가 더워도 발병하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베트남 행이다. 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그것들을 무차별 산 채로 매몰 처분하고 있지만 그것은 확산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들은 공기와 땅의

학대로 인한 대재앙인데, 앞으로 예견되는 또 하나의 재앙이 있다. 그것은 바다의 오염으로 인한 대재앙이다.

우리는 강을 통해 생활 오폐수와 공장 오폐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고, 핵폐기물을 먼 바다에 버리고들 있다. 기름 실은 배들이 좌초되면서 쏟아낸 원유로 인하여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다. 더럽혀진 지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바다는 이제 천천히 그 자정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스스로 백화(사막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벌지 않아 바다가 인류를 향해 독을 뿜어내는 대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앞당기는 일을 정부가 강행하려고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 대운하이다.

한반도의 남북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은 물의 순환을 거스르는 광기이다. 강물을 운송수단으로 쓰고, 운하에 배를 띄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물의 흐름을 막는 죄악이다.

기차와 고속도로가 있는데 운하가 무슨 소용 있단 말인가. 그것은 땅 투기꾼, 건설회사에게 사업주고 리베이트

받아 챙길 정치꾼들의 장난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새만금보다 더 엄청난 모험이다. 그것은 홍수 대란 교통 대란 지하수 대란 생태계 대란을 불러올 것이다.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물의 깊이는 최소한 6미터가 기본이다. 해발을 기준으로 할 때 땅이 낮은 쪽은 독을 높이 쌓아야 하고 높은 쪽은 땅을 깊이 파내야 한다.

가뭄에 운하의 물 깊이 6미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홍수가 지면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이때는 범람의 재앙이 일어난다.

김상중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한 칼럼에서 홍수 위험 지역이 30여 곳이고, 자동차 건너는 다리, 기차 건너는 다리 등 1백여 개를 철거하고 다시 운하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강의 흐름을 파괴하고 새로이 독을 만드는 과정, 기존의 다리들을 파괴하고 운하용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물의 흐름 대란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 한다. 해발을 기준으로 높은 곳을 6미터 이상 깊이 팔 경우 지하수가 모두 그리로 모여들면 근처의 모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생태계는 얼마나 파괴되는가.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 국민들은 썩은 물을 먹어야 한다. 배가 다니면 폐기물이 자동적으로 유출된다. 생활 오폐수와 축산오염물과 공장폐수와 골짜지에서 흘러나온 물까지 합하면 운하 속에 담긴 물은 공장수로도 쓸 수 없는 4급수가 될 것이다. 이 물 속에서 고기가 살겠는가. 우리는 엄청난 많은 먹은 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미얀마에 닥친 대재앙에 군사독재 정권의 관리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피해를 키웠다는 것과 중국의 대지진이 천지우주의 대 경고임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대운하 사업 강행의 오만과 탐욕을 버려야 한다.

부처님은 인류에게 물 흐르듯 꽃 피듯이 살라고 가르쳤다.

한승원 (소설가)

'허허담의 세상만사' 쉽니다



미얀마·중국에 자비의 손길을

조계종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발생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와 중국의 대지진 피해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구호성금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원력을 가진 불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동참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27811, 농협 053-17-005950
- 예금주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모금기간 : 6월 30일까지
- 문의 :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2011-1823)

東大 의과·생명과학대 일산 이전

첨단의료단지 조성

경기도·고양시와 MOU 체결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서울대 의과대학과 생명과학대가 경기 고양시 일산병원 인근 부지로 옮겨져 의료연구단지가 조성된다.

동국대는 5월 15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 고양시(시장 강현석)와 동국대 캠퍼스 설립과 첨단의료복합단지(메디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MOU)는 동국대의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고양시는 일산 동국대 부지와 인근 사유지를 포함한 식자동 일대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적극 유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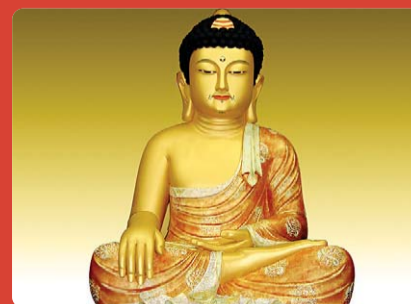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일본 고베의료산업단지,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 등이 있으며, 의료와 의료산업 등이 복합된 전문단지다. 일산에 조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美 노스캐롤라이나의 메디클러스터인 RTP(Research Triangle Park)를 벤치 마킹했다.

조종섭 기자

불가 최초 관불 관육 전용
관불수향
전 단향이 그윽한 향탄수로 관불 관육시 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향 · 조각 · 공양물
동인향방
02)3663-6777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영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후대문 | 010-7504-4521 (김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성불조각원 www.sunbul.co.kr



서울 송림원 석가모니부처님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오대산 상원사 500나한



신홍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성불조각원은 불교 목공예를 전문으로하여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작품에는 작은 못하나 사용
치 않고 짜맞춤공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수작업을 필요로 하지만 작은 경상 하
나라도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
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 대덕스님
들의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성불조각원이 하는일

- (목) 부처님 조성, 목명화, 사천왕, 나한...
- 법당 내부공사, 조각문, 현판, 용두...
- 연, 법상, 목어, 불명패 기타 모든 작품 주문 제작 합니다.

※ 작은 일이라도 불심으로 정성껏 상담합니다.

- 전시장 :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 전 화 : 033)263-1102 · 017-379-0590